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17조원 달성

- '23년 서울지역 공공기관(193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17.3조원
-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액 지속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2023년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7.3조원에 달함으로써 작년 15.6조원 대비 1.7조원이 증가하여 공공구매가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127조원(854개 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 개요>

- (개 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판로지원법 제5조)
- 제품별 법정 의무 구매비율

구 분	구매비율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의 50% 이상	판로지원법 제5조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판로지원법 제13조
여성기업제품	•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여성기업법 제9조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이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또한, 여성 및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지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기업제품 : ('21) 19,396억원 → ('22) 21,934억원 → ('23) 25,405억원

* 장애인기업제품 : ('21) 2,949억원 → ('22) 3,186억원 → ('23) 3,456억원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에 의한 우수 기관은 서울교통공사가 해당되며, 서울지역 구매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은행, 한국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코레일로지스(주),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에너지공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6.5조원이며, 이는 서울지역 기관 전체 구매액의 76% 수준으로 올해도 공공구매를 통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 : 119.1조원(전체 구매액의 75%)

서울중기청은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매상담회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 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202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을 현장 방문하여 격려하고 우수성과 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등을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는 공공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2-2110-6318)
		담당자	주무관	김고은 (02-2110-6324)

